

##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a href="#">기독교사상 52(12)</a> , 2008.12, 56-66(1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한기독교서회</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9446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94460</a>
APA Style	양명수 (2008).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52(12), 56-66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4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양명수\_이화여대 교수

## 한국교회, 선형적 자본주의자

자본주의란 사유 재산과 자유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 활동 체제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동기가 비인격적 장치인 시장을 통해 확장된 협력을 이룬 결과 사회의 물질 생산량이 늘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믿는 정치 이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빈부의 차이를 사회의 풍요를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본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간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찾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안에서 자유를 사랑의 공동체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종교다. 자본주의가 경제 정치적인 신념이라면, 기독교는 정신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마음을 다스림으로 참다운 자유를 찾고자 했던 인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며 성장해 왔다. 서양 역사에서 오랫동안 교회가 국가의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 도덕성 때문이었다. 국가는 물질을 다루는 질서로써, 영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교회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경제·정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영적인 자유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자본주의의 낮은 도덕성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중세 때 사제들에게만 요구되었던

높은 도덕성을 모든 기독교인에게 확대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출발에 칼빈주의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와 칼빈주의는 다르다고 본다

기독교는 어떤 관계인가?

그 문제는 간단치 않은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형적으로 자본주의자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한국에 온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문명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처음부터 자본주의 문명의 화려함과 풍요를 접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처음부터 물질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 점에서 한국의 초대 교인들과 기독교의 초대 교인들은 근본 경험이 다르다.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구도 속에 있으면서, 자본주의는 곧 기독교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관심이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채택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리고 안보의 문제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 기독교인들과 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부와 국방력을 가져다 준 자본주의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데 있다. 한국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해 자본주의를 수호하고자 할 때, 한국교회는 그 자본주의를 신앙으로 수호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갈수록 신앙의 내용이 되어 버렸고, 신앙은 형식만 남은 것처럼 되었다. 신앙인도 이 땅에 사는 한 경제 부흥과 안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정치·경제적인 기대와 희망이 강하게 신앙의 내용을 지배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기독교인 엘리트들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은 한

국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힘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교회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승리와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초창기 교회부터 내려왔던 구호 곧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나라 미국의 자본주의 혜택으로 경제 부흥에 성공하며 현실화 되자, 기독교는 축복받는 종교로 한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구호가 크게 세력을 떨쳤지만, 사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명제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천당보다 더 좋은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천당도 가면 얼마나 좋은가. 적어도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예수 믿는 나라는 모두 잘 사는 나라라는 설교다.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기독교로 바뀌었다. 정신세계의 자유와 높은 도덕성을 가르치는 고등 종교가 물질세계의 안락함을 가져오는 축복의 종교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교회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부와 힘을 가져다주기를 약속한 종교가 아니지 않은가? 예수와 바울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교회 교부들의 신학에 그런 주장이 있는가? 그들은 오히려 사유재산과 빈부의 차이를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투쟁까지 하도록 권면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빈부 차이를 높이는 정책을 지지하며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차피 자본주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래서 기독교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둘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고 삶을 꾸려간다고 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당연히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를 보면 결국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로마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로마법을 따라 살게 된 것과 같다.

신학의 변화에서 생긴 세속화와 거기에 따른 높은 도덕성의 실천 없이,  
한국교회는 교회주의라고 하는 중세 신학을 가지고  
물질 축복과 사업의 성공을 복음의 중심으로 내세우며,  
그것이 자본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기독교인들의 윤리 문제

한국의 교인들은 기독교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윤리라는 것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이전의 교회가 요구하던 높은 도덕성에서 낮은 도덕성으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윤리를 외면한 채 자본주의만 수용한다.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경제 정치적인 이념 속에 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가 자본주의 식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 다른 이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무역이나 장사가 더 이상 열등한 직업이 아니어야 했고,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데 몰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했으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도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했다. 그런 면에서 물질에 대한 정당한 의미부여가 중요했고, 이기심을 나쁘게 보지 않아야 했으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했다. 서구 사회에서 그런 변화는 수백 년의 세월을 걸쳐 일어난 것이다. 중세 말기에 상업 도시가 발달하고, 르네상스를 통해 인간적인 것을 재발견하고, 과학의 발달로 개인의 주관을 인식과 도덕가치의 권위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저 세상에서 있을 궁극적 세계 이전의 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신학으로 보면 실재론과 유명론 논쟁을 거치고, 중세의 신관이 바뀌면서 교회의 초자연적 권위가 해체되고, 세속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은 자본주의 윤리 출현에 매개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면에서 자본주의 자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상업을 천시하고, 재물을 늘리는 것을 경계했으며, 이자를 받

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인간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으며, 그러한 영적인 거룩성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낮은 도덕성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중세 때 사제들에게만 요구되었던 높은 도덕성을 모든 기독교인에게 확대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출발에 칼빈주의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와 칼빈주의는 다르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은 개인 소유권 강화나 금융 자본주의 그리고 이윤동기에 의한 복지 향상의 믿음은 칼빈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종교 개혁과 별개로, 16세기의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도덕적 당위에 바탕을 둔 정치 사상을 거부하고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바탕을 둔 정치사상을 마련하려고 『군주론』을 썼다. 덕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중세 신학을 거부하고 인간의 현실적 욕망에 기초한 정치사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는 중세 교회가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결과적으로 잔인해졌다고 보았다. 그런 추세의 연장에서 자본주의 윤리는 18세기에 상업이 발달한 영국에서 그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종교적인 이타주의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도덕적 기준을 높은 이상에서 찾지 않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규율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기심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Self-interest라고 하여 부도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긍정하고, 남을 해치면서 자기 것을 확보하려는 Selfishness와 구분했다. 그는 이미 무신론에 가까운 이신론(理神論)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계명 대신에, 물질의 추구를 놓고 이루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그리고 남과의 경쟁을 치르는 일정한 태도와 관련해서 도덕을 생각했다.

그렇게 보면 원래 자본주의 윤리는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생긴 것이다. 누구나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러한 욕망이 충돌할 때 적절히 조정할 줄 아는 것을 도덕으로 본 자본주의 윤리는, 사랑과 희생 같은 높은 덕을 말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둔 것이다. 20세기 자본주의 이론가 하이에크(Hayek)는 사랑과 희생은 가족이나 배타적 소집단에서나 가능한 본능으로 보고, 정직과 관용을 바탕으로 게임의 룰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할 줄 아는 것을 도덕으로 본다. 그래야 확장된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칙을 쓰지 않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지상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다.

교회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목표가 되어도 안 된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공동체다

고 게임을 공정하게 할 줄 아는 것은 종교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종교와 다른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 올 때의 복음은 이미 자본주의 문명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와 연결된 서구의 근대 문명은 교회와의 싸움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사상의 견제 없이 전면적인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예를 들어 토마스 제퍼슨이나 존 아담스나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윤리의 대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그러므로 미국의 자본주의 역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독교 정신이 미국 건국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종교 개혁을 거쳐 세속화된 기독교이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기독교와는 다르다. 종교 개혁은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을 없애고, 성직과 일반 직업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교회와 속된 공간으로서의 세상의 구분을 없앴다. 그리하여 중세 때 성직자들만 지키면 된다는 그리스도의 높은 계명들(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을 평신도들에게도 요구했다. 다시 말해 종교 개혁의 세속화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을 상당히 높이 잡은 것이다. 이런 작업들은 중세에 교회와 사제가 쥐고 있던 객관적 권위를 없애고, 누구나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다고 함으로써 권위의 중심을 인간의 주관으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이후 신학의 중심 개념이 실체가 아닌 주체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막스 베버가 기독교와 자본주의 연관성을 찾은 핵심은 세속 내 금욕이었다. 세속적인 직업에서 매우 큰 소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았기 때

문에 돈이 모이고, 모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 요소인 자본이 되어 사회에 재투자가 되었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설명이다. 자본주의 발달과 연관이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청교도를 드는데, 그들은 매우 검소하고 철저한 도덕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여러 가지 은사나 물질의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은혜를 객관화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와 연결될 만한 종교 개혁의 요소와도 거리가 멀다.

신학의 변화에서 생긴 세속화와 거기에 따른 높은 도덕성의 실천 없이, 한국교회는 교회주의라고 하는 중세 신학을 가지고 물질 축복과 사업의 성공을 복음의 중심으로 내세우며, 그것이 자본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낳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기독교 윤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윤리와의 거리가 멀게 된다. 앞에서 본 대로 자본주의 윤리는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보되, 그것이 남과의 경쟁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새로운 도덕 기준을 세웠다. 그 결과 중요시 된 것이 정직과 공정성 그리고 관용이다. 이것은 모두 신앙이나 은총이 아니라 이성인 사람이면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덕목이다. 정직은 거래 질서에서 최고로 중시되는 덕목이고, 공정성은 물질을 놓고 벌이는 경쟁에 필요한 덕목이다. 관용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을 한량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남에게 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것은 황금률의 소극적 형태요, 공자가 말한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 중의 서(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담 스미스는 공감 또는 동정심(sympathy)이라고 했다. 종교가 말한 높은 덕목은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황금률)거나 “네가 영달하고 싶으면 남을 영달시켜 주라”(患)는 것인데,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동정심은 그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게임에서 반칙을 쓰지 않고 게임의 룰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상식 수준의 도덕성이다.

두 차원의 도덕이 있으니, 사랑과 희생이라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과 정직이라는 상식적 도덕성이다. 전자는 인문주의나 고등종교가 말해 왔던 것이고 후자는 자본주의 윤리다. 그 둘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없다. 사랑과 희생은 사유재산을 강



영적인 힘은 권력과 무관하다.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영적인 힘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강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시장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힘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화하고 빈부의 차이를 확대하는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의 곧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 자본주의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한다. 그 결과, 사랑이 정의의 완성이 아니고, 정의의 방해꾼이 된다. 교회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 때문에 정의를 위한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말하지만, 그 때문에 계임을 공정하게 하는데 미숙하고, 반칙을 많이 쓴다. 이것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 기초를 서구는 자본주의 윤리를 통해 정립했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윤리 없는 자본주의의 신봉자로 남아 있다.

### 자본주의 방식의 교회 성장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지상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다. 교회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모든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라는 조직 자체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원래 교회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교회는 그 존재와 삶으로 세상에 대해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교회의 증언은 전도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증언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제와 행정이 일반 사회의 억압과 권력과 소유 질서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그 자유가 교회의 거룩함을 만들고, 그러한 모습이 국가라고 하는 정치 경제적 공동체에 대한 대안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 나라에 대한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데 있고, 그런 모습이 하느님 나라를 증언한다. 그러므로 증언은 전도보다 교회의 존재의 모습이 세

상에 주는 메시지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만일 성장을 말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그 내면이 충만해져서 갈수록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데 있는 것이지, 그 덩치를 키우거나 사람을 일삼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일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존재의 충만함의 증언이 저절로 불러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 나라로부터 구분되는 이유다. 세상 나라의 모든 단체는 숫자를 늘리고 그 덩치를 키움으로 살아 있음을 증언한다. 물량적 성장이 목표요 생존이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곁의 물량적 성장으로 살아 있음을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늘어난 권력의 시위를 통해 사람을 시장 메카니즘으로 유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좋은 종교 상품이 있으니 와 보시고 사라는 것이다. 진리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원래 내세운 진리는 인간의 종교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적 상품이 될 수 없다.

숫자는 권력이다. 진리가 힘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영적인 힘은 권력과 무관하다.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영적인 힘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강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시장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힘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성장이 마치 하느님 나라의 확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숫자와 물량의 물리적 힘을 가지고 인간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공을 꾀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시장 메카니즘을 따른 것일 수는 있어도 교회가 행사하여야 할 영적인 힘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교회가 커지는 것은 교회의 확장은 될지언정 하느님 나라의 확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하느님 나라는 숫자와 물량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다. 숫자와 물량을 늘리는 일이 교회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큰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시장바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교회의 수단이 된다. 하느님도 사람이 하느님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의 수단이 되는 교회는 더 이상 하느님의 교회는 아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전체 물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가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빈부의 차이는 전체 물량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남보다

자본주의의 시장은 나름대로 인간 삶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과 물질의 권력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교회의 존재 의의라고 할 때,  
 종교 시장의 확대는 하느님의 교회의 소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잘 살 수 있다고 할 때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물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완벽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인간성을 고려할 때 약자를 배려하는 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자본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이다.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는 언제나 정의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약자 문제를 언급해야 자본주의 질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정당화를 통  
 해 성장이 추구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자가 생겨 빈민층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여하튼 자본주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해  
 결은 경제성장에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의 성장론이 한국교회의 성장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  
 가 종교 시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이 거래되는 곳  
 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에서 필요한 물건  
 과 부의 욕망이 교환된다. 교회가 종교 시장이 되면, 거기서는 물질의 축복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된다. 물질은 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덩치와 숫  
 자가 모두 물질적인 것이다. 교회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영방식을 동원해서 성장  
 지상주의로 가는 것은, 덩치와 숫자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이 교인들이 바라는 물질  
 축복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은 육을 낳는다. 헌금을 제물로 바치고, 전능한 신에게서 물질 축복의 확신을  
 얻는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죄를 위한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 속죄는 속죄라는  
 영혼 구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의 전능함으로 전이된  
 다. 더구나 제물이 더 이상 피를 내는 짐승이 아니고, 돈으로 바뀐 다음에는 더하  
 다. 예수는 당시에 이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의식을 물질 축복의 욕망의 거  
 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바닥으로 보았다.(요 2장) 하물며 요즘은 돈을 드리는 데야

물질 보상의 심리는 더하다고 할 것이다. 원래 종교에서 제물은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데, 죄 사함의 문제가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문제로 가기도 전에, 생활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힘으로 바뀐다. 그 결과 거래되는 것은 육적인 것들이다. 물질과 육의 축복을 위해 물질을 바친다. 그것은 종교 시장을 만든다.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데(요 3:6), 교회 성장론은 육이 육을 낳는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영은 영을 낳기 때문에 육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성장연구소를 세워서 많은 목회자를 교육하는 것이나, 설교의 중심에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것이다. 요즈음 전통적 방식을 탈피해서 예배 형식을 바꾸고 CCM이 들어가는 새로운 시도들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배워온 것이다. 그것은 종교를 시장화는 것에서 멀지 않다.

자본주의의 시장은 나름대로 인간 삶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과 물질의 권력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교회의 존재 의의라고 할 때, 종교 시장의 확대는 하느님의 교회의 소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종교 시장의 확대는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원래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영적인 공동체에서 목표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지상주의는 교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기삼**

**양명수** |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감신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 정의론과 문명론, 프랑스 철학과 해석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학을 비롯한 한국 사상에 바탕을 둔 신학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테크니우스』, 『기독교사회정의론』, 『녹색윤리』 등이 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다.